



Market Index / 5일

코스피지수 ▲ 2165.63 +7.73	코스닥지수 ▲ 661.32 +0.08	유가(WTI, 달러) ▼ 49.61 -0.50	감골 평균경락가(5kg, 원) ▼ 6.500 -300	환율(원) 1USD 1207.77 100¥ 1104.04	살때 팔때 1EUR 1166.23 1066.08	살때 팔때 1CN 1337.06 178.16	살때 팔때 1284.90 161.20
--------------------------	-------------------------	------------------------------	----------------------------------	------------------------------------	-------------------------------	-----------------------------	-------------------------

인기몰이 제주 '감귤한과' 미국시장 진출

신호생활개선회 생산 '굴향과' 지난해 25억원 매출 작년 12월 첫 수출이 어제 4000상자 등 3만불 어치

제주감귤을 이용해 여성농업인이 직접 만든 전통한과 '굴향과'가 능가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외수출로 이어지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신호생활개선회가 생산하는 '굴향과'가 2019년 25억원의 매출과 함께 12월 미국 첫 수출에 이어 2월 5일 2차 수출로 미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호생활개선회 굴향영농조합법인(대표 오화자, 이하 굴향과)은 각종 박람회 등 홍보활동을 통해 수출 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감귤한과 4000상자에 이어 2월 5일 4000상자를 수출하는 등 총 8000상자(10개입, 3만불)를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신호생활개선회는 2009년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마을에서 이어져 온 전통제조 비법과 반죽과정에서 물 대신 감귤즙을 사용해 맛과 향기가 부드러운 '굴향과'를 생산하고 있다.

'굴향과'는 감귤농사를 짓고 있

는 여성농업인 7명이 모여 일자리 창출과 비상품 감귤 소비를 목적으로 시작했으며, 감귤한과가 제주 한과로 인정되면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굴향과'는 7명 회원 외에 사무직 3명, 직원 8명 등 18명의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 5~14명 내외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 감귤 원료는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감귤을 수매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100여t의 감귤 소비로 지역 농업인 소득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1차 감귤 생산, 2차 감귤과 가공품 생산, 3차 관광객 대상 과달 만들기 체험장 운영으로 2015년 6차 산업 인증을 획득했으며, 감귤 이외에도 지역민이 채취한 뽕잎과 속 등을 이용한 과달도 생산하고 있다.

오화자 대표는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이용한 굴향과를 해외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지금은 수출 물량이 적지만 마을과 생활개선회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굴향과를 하나 하나에 정성을 쏟아 수출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은 농가 농외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새로운 소득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신호생활개선회 굴향영농조합법인은 감귤즙을 사용해 맛과 향기가 부드러운 굴향과를 생산하고 있다.

주간 재테크 핫 이슈 주식시장 조정이후 투자 전략

"국내 증시 조정 단기적 가능성 높아"

지난 1월 글로벌 증시는 부정적 이슈가 다양하게 작용하며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여기에 IMF가 2020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우려가 부각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미중 1단계 합의 이후 완화됐던 무역분쟁 우려 또한 다시금 등장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국내 증시 역시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 연초에 배당관련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1190원대까지 상승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불러 왔으며 이번 바이러스 확산 이전에도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이후 변동 국면에서

아야 할 업종은 지난해 12월 이후 증시 반등을 주도했던 경기민감주, 대형 IT, 그리고 성장주일 것이다. 관련 종목들의 경우 최근 증시 조정에 따른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향후 증시 반등 국면에서 재차 상대적 강세로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향후 실적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 2020년 연간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과 업종의 경우에는 꾸준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IT가전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이번 바이러스 확산 이전에도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이후 변동 국면에서

각국 정부 컨트롤 판단... 국내 증시 긍정적 영향

반등국면 활용 반도체·IT·전기차업종 관심 필요

하지만 국내 증시 조정은 일단 단기적인 가능성이 가장 높고 장기화 될 가능성은 아직은 낮아 보인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과거 유사한 사례를 통해 판단해 볼 때 확산이 피크를 지나는 시점부터는 증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고 각국 정부의 컨트롤 가능한 범위에 들어올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사이클 회복에 따른 관련 기업 중심으로 2020년 국내 기업이 이익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기에 국내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향후 최근 증시 하락 조정국면을 매수 기회로 삼을 만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전염병 유행 이전에 증시를 주도하였던 업종들의 경우 전염병 유행이 줄어들면서 다시 증시에 주도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주도업종이 실적 등 기업 가치에 기반한 업종인 경우에는 전염병 사태 이후에도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향후 증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

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업종의 경우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었다. 현 시점에서 반등 국면을 활용하여 반도체, IT, 전기차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분명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는 글로벌 경제나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정적인 이슈이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서 향후 투자전략을 수립한다면 충분히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주가 가장 절정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 이전에 주도업종, 종목 중 이후 낙폭이 큰 기업 그리고 이익전망치가 상향되는 업종과 기업에 대한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정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관광업계 피해 구제 특별지원책 마련을"

관광협회·관광공사 촉구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지역 관광업계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관광업계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경제를 견인하는 관광산업이 무너지면 제주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관광업계를 비롯한 도내 기업 피해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조기 지원을 비롯한 관광진흥기금 상환 및 세급납부 유예, 업계 휴업에 따른 지원 등 제정을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업계가 피해를 감수하면서 무사증 출입제도의 일시 중단 결정을 함께 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도 업계의 이러한 노력을 감안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예산을 제주지역에 특별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이번 사태가 진정국면에 이르기 전에 국민의 국내 관광과 내수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침체되어 있는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백규탁기자

화장품·농수산물 등 5대 분야 쇼핑물 육성 참가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가 7일까지 '2020년 자사 쇼핑물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들은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농수산물, 의약품 등 5대 핵심 소비재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온라인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춘 자사 쇼핑물을 육성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청 대상은 외국어로 구축돼 있고 결제, 배송, 교환·반품, 고객 응대 서비스까지 제공 가능한 자사 쇼핑물을 보유한 기업이다. 여기에 해외

현지 쇼핑물 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온라인 지사화' 분야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참여 기업에게는 자사 쇼핑물 홍보·마케팅 비용 및 쇼핑물 리뉴얼 비용 등을 온라인수출 성장 단계별로 차등해 총 사업비 70% 이내, 최대 1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하반기 평가를 통해 수출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의 10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추가 프로모션 기회도 제공된다. 사업 참여신청은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에서 가능하다.

전경훈 공단제주본부장은 "도내 온라인 수출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규탁기자 haru@ihalla.com

www.boraflower.com

전국 꽃배달 서비스

38년 전통 농장에서 직접재배 판매까지

제주에는 꽃보라화원이 책임집니다.

City Flower 전국 꽃배달 서비스

동·서양난, 축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모든정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꽃보라화원

☎ 746-0014, H·P 010-3693-5563

제주시 신광로8길 3
(제원사거리 위 국민은행 신제주지점 맞은편 골목)

농장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